<고양이를 찾는 방법>

고양이를 잃어버렸다.

이상기후여서 비가 엄청 오는 날, 고양이를 구할 사람은 구애인 ‘선미’ 밖에 없다.

‘선미’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해명을 듣고 싶어한다. 해명을 듣기 전에는 고양이를 함께 찾지 않는다고 한다.

그러나 그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다.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퀴어인데, 퀴어 정체화를 한 뒤에 선미와 헤어지게 되었다. 선미는 이 사실을 모른다.

선미의 마음을 해치지 않고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. 하지만 선미는 퀴어혐오자다.

플레이어는 최대한 돌려서 이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. (거짓말을 하는 선택지는 없다. 왜냐하면 선미는 진실만을 원하기 때문에.)

(선미와 나누는 대화는 스릴러의 분위기를 띤다.)

-조금만 선미의 심기를 건드리면, 선미가 화를 내고 떠나버린다.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을 수 없다.

-선미를 설득하면, 고양이를 찾을 수 있다. 하지만 그 뒤에 선미가 플레이어를 아우팅해버린다.

엔딩: 사실 이건 퀴어 게임 워크샵을 하는 주인공이 만들어낸 게임.